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1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31일 (음력 4월 17일) 목요일

광주·전남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개시



광주·전남의 리더 겸 자치 일꾼을 선출할 6·13 지방선거가 31일 공식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13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여·야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 970명(국회의원 재선거, 교육감선거 포함)은 선거구 곳곳을 누비며 공약과 인물론, 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통해 표심을 자극하고 TV토론회 등을 통해 차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반도 대변역과 있던 정상회담 등 중앙발 대형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뜨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공식 선거전을 통해 후보들이 선거 열기와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등록 마감일 후 6일째, 투표

일로부터 13일 전인 31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2명,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1명, 기초의원 311명 등 423명의 자치 일꾼이 새롭게 선출된다. 광주 서구갑과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2명도 함께 선출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광주에서는 227명, 전남에서는 739명이 공식 등록을 마쳤다. 광주·전남 통틀어 966명이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광주·전남 각각 2명씩 등록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누구든지 31일부터 투표 전인 6월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선거·국회 재선거 후보자들 '6·13 레이스' 돌입

광주시장 4과전·전남지사 5과전...교육감은 각 3과전

TV 광고, 연설·대담 가능...유권자 SNS 비방은 금지

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들을 붙이거나 지닌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식선거장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인문 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한 가능하다. 단,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를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TV 토론은 광주시장의 경우 KBS 중계로 6월7일 오후 11시15분 토론과 8일 오전 0시35분 대담이 이뤄지며, 시 교육감은 3일 오전 7시35분 토론 방식으로 MBC에서 중계된다. 비례대표 시의원은 1일 오전 9시45

분과 낮 12시20분 2차례 MBC를 통해 중계된다. 서구갑 재선거는 KBS 중계로 4일 오후 11시15분 열린다.

구청장 토론방송은 ▲동구 1일 오전 10시(KBS) ▲서구 6일 오후 1시50분(KBS) ▲남구 2일 오전 10시 토론 11시25분 연설(MBC) ▲북구 2일 오전 11시40분(MBC) ▲광산구 3일 오후 3시10분 토론, 오후 4시 10분 연설(KBS) 등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후광'과 탄탄한 당세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연이은 대형 이슈에 불허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투표율은 비상이 걸렸다.

광주지역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64.8%, 제2회 41.5%, 제3회 42.4%, 제4회 46.3%, 제5회 49.8%, 제6회 57.1%다.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은 제1회 76.1%를 시작으로 제2회 68.2%, 제3회 65.6%, 제4회·제5회 각각 64.3%, 제6회 65.6% 등 전반적으로 광주보다 높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전남 통틀어 광역의원 선거구 10곳, 기초의원 2곳에서 14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광양시장과 화순군수 선거에서는 숙명의 라이벌 간 리턴매치가 펼쳐지게 됐고,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정치적 라이벌 간 맞대결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신봉우 기자

Photo 漫評

화합주?

서울 송파를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28일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저녁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2시간여 회동했다. 참석자들은 당 화합과 결속을 화두에 올려 막걸리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위원장이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회동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쌓인 앙갚음을 타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승민 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회동에 늦게 도착하고, 안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준비 관계로 알짜 일에서는 비참에 공천 갈등의 중심에 섰던 두 사람의 만남은 10분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인사들의 숙제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스1



여야 전남 지방선거 선대위 속속 출범...본격 선거체제 돌입

6·13 지방선거 31일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각 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계호 전남도당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26명의 공동선대위원장과 상임부위원장 59명, 부위원장 263명, 고문 24명 등 총 457명으로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다.

국창근 전 국회의원이 수석상임고문에, 이완식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차봉근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됐으며,

최종석 나주지역위원장, 신정훈 전 국회의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중 전남도당, 이계호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총 457명 매머드급 구성

바른미래·민평당 전남도당도 현직 국회의원 합세...정의·민중도 원료

또 설훈, 이종길, 박영선, 송영길, 안민석, 안규백, 김태년, 김진표, 전해철, 김두관, 신경민, 박광운, 표창원, 김영호, 기동

민, 황희 등 현직 국회의원 16명도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에 위촉됐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도 주승용·최도자 현역 국회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지문단과 고문단, 지역위원회 선대위를 구성했다. 김상봉 전남도당 사무처장이 중

합상황실장, 정봉준 도당대변인이 대변인에 임명됐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도 이용주 전남도당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박지원, 황주홍, 정인화, 윤영일 현역 의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정의당도 강기갑 전 의원과 심상정 윤소화 의원이 선대위원장에 위촉됐다.

민중당은 상임공동위원장에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민접기 민주노동당 전남본부 전 부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배종렬 전 전농의장과 서경원 전 평민당 국회의원, 김병규 나주 교직원교회목사가 고문단을 구성했다.

조인호 기자



정남진장흥
장흥한우
Jangheung Hanwoo Korean Beef

값싸고 질 좋은 장흥한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 www.jangheung.go.kr

장흥군 · 장흥한우유통합산업회사사업단